

신광 개인전 <이사와 이주>에 부쳐 - 김인선

신광 작가는 외국인이다. 중국 연변에서 살았던 조선족인데 미술 공부를 위하여 한국으로 유학을 왔으며, 현재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가정을 꾸려 서울에서 살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서울 지역의 수많은 외국인 거주자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지내고 있다. 그러는 동안 작가는 '보이지 않는 경계'-이번 전시의 신작의 제목이기도 한-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과 일반화된 현상을 드러낸다. 작가는 그의 출생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전시장 한 면을 채우고 있는 <이사와 이주>는 드로잉과 사진으로 구성된 총 24점의 액자형식의 작업이다. 액자는 검은색과 흰색 두 가지 종류인데 이는 지역적인 구분이다. 검은색 액자들은 1880년부터 2007년 까지 신광 작가가 태어나서 자라온 연변 지역 거주지에서의 난방구조를 그린 드로잉 7점에 각 해당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그 기간 동안 찍은 가족들과의 사진 등이 위·아래로 배치되었다. 2007년도에 서울로 이주하면서 거주하게 된 5개의 집의 난방구조를 그린 드로잉과 기록, 그리고 해당 기간에 찍은 사진들도 흰색 액자를 통하여 볼 수 있다. 이 작업은 작가의 사적인 기억을 통하여 어떤 환경에서 살았으며 그 환경의 변화가 집의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등을 서술하며 각 주거 공간의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건강상 신변 등에 의해 그 구조가 바뀌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이다. 작가의 주변에서 일어난 가족 구성원들과의 생활과 그에 따른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하여 선택한 것은 집이라는 거주 시설의 난방 방식에 대한 것이지만 이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화 현상, 이데올로기, 정체성 등의 변화로서 치환하여 들여다 볼 수 있다.

작가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 이주자들의 분포에 대한 통계를 내고 이를 전시장에 적용함으로써 이질적 지역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보이지 않는 경계>라는 작품에서 사용되는 어플을 실행해 보면 두 개 구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 텍스트가 생성되는데 여기서 특정 에피소드는 인용되지 않는다. 전시장의 일정 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으로 진입하면 A라는 외국인 거주구역이 되고 그 구역을 벗어나면 B라는 지역으로 가게 된다는 지극히 단순한 시스템이다. 또한 작가는 전시 기간 중 주말 동안 전시장의 한 구역에서 지속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는 외국인 집거지역의 전철역 이름들을 허공에 적는 것이다. 허공에 적히는 글은 행위로서만 현장에서 보일 뿐 남겨진 흔적은 없다. 흔적이 남지 않고 지워져 버리는 것은 물리적 경계를 보여주기를 거부하고 심리적, 정서적 차이에서 생성되는 자연스러운 문화적 차이를 감지하고 있는 현황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이다. 단순한 수치적 통계의 차이 외에는 특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딱히 없는 것은 그다지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차이를 들추어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리라. 작가는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주요 동네들에서 생성된 구역의 문화는 단지 또 하나의 구역으로서 생성된 새로운 장소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경계가 문화의 차이를 바라보게 하고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구분해 내는 현실의 감성에 스스로 적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관객 또한 타자가 아닌 주체로서의 '나'에 대한 구분 또한 모호해짐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적응 과정은 영상 작품 <당구>에서 볼 수 있는데, 작가와 한국인 친구 둘이

서 진행되는 당구대 위에서 벌어지는 게임을 찍은 화면이다. 당구 게임 중 ‘사구’와 ‘포켓볼’이라는 대중적인 경기를 각각에 사용되는 볼을 서로 바꾸어 새로운 경기로서 진행하는데 기존의 룰로는 불가능한 게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진행한다. 새로운 룰에 맞춰 진행되는 경기는 처음에는 무척이나 어려워 보이지만 보는 동안 이내 적응하여 관람하게 되고 심지어 이 게임은 흥미진진해진다. 이 게임이 흥미로워지는 순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작가는 전시장 입구에 <대기 번호표>라는 작업 중 일부를 확대하여 부착하였다. 그는 출입국 사무소라는 국가 간 경계를 가장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상징적인 기관에 1년동안 (2008.11~2009.10)매일 방문하였다. 심사를 받기위하여 순서를 정하는 이 단순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되 신광 작가에게는 심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이 해당 장소에 존재했다는 것을 남기는 징표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스페이스 윌링앤달링에서는 몇 가지 이유로 외국인의 전시를 하지 않고 있다. 작가에게 입구에 뭔가를 꾸며보았으면 하고 추가 작업을 제안했을 때 작가가 내놓은 안이 바로 이 작업이었고, 나는 조금 뜨끔하였다.